

■내년부터 바뀌는 스포츠 규정들

더블헤더·전신 수영복 퇴출

2010년 스포츠계에서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다. 수영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양산했던 첨단 수영복을 더는 입을 수 없게 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고, 앙공에서는 세트제를 도입해 긴장감을 높였다. 국내에서는 '공부하는 선수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계속된다. 바뀐 제도와 규정이 경기력에 미칠 영향력을 놓고 해당 종목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손익계산도 벌써 분주하다.

새로운 스포츠계의 주요 변화를 종목별로 살펴본다.

▲수영복 논란 '이제 그만'= 지난해부터 세계 수영계의 화두는 '기술 도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첨단 수영복이었다. 첨단 수영복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직후에 무려 108차례 세계 기록이 쏟아졌고, 올해 7월 이탈리아로 로마에서 개막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만 무려 43

선수들은 기존에 개인전 128~16강까지는 1대1로 맞서 12발을 쏘아 득점 순으로 승부를 가렸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르면 세트당 6발, 3세트로 개인전이 진행된다. 세트당 3발씩, 최대 5세트(15발)를 치른다.

단체전은 기준에 3명이 엔드당 2발씩,

4엔드를 진행해 총 24발을 쏘았지만 새

규정에서는 한 명이 세트당 한 발씩 쏘아 4세트, 12발로 승부를 가린다.

▲대학스포츠, 연중 리그로=대학 스포츠가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선수를 키워내고자 내년부터 전국규모 대회를 폐지하고 훈련 및 시합 금지를 통한 학습권 보장,

2016년부터 티저학력제를 통한 특기자 선발 및 학사 경고자의 대회 출전 금지 등을 시행한다.

미래 U-리그는 이미 2008년 10개 대학이 참가한 시범 리그를 거쳐 올해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중 리그제를 시행했던 대학 축구는 내년부터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프로야구 더블헤더 폐지=내년부터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는 다년 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금도 받을 수 있다. 또 FA 선수를 새로 영입할 때 이전 소속 팀에서 받은 연봉의 50%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한 상한선도 폐지해 FA 선수들이 아직 후 곤바로 크게 오른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요일 경기와 더블헤더는 폐지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내년부터 열리는 모든 프로대회에서 아이언과 웨지의 스피드를 좌우하는 그루브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태릉선수촌은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준비중인 대체육회(KOC)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할 전망이다.

박용성 체육회장은 29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밴쿠버 동계올림픽에는 모두 7개 종목 중 5개 종목에 (한국선수가) 나가고 처음으로 출전선수가 50명을 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종목별로 출전권은 올림픽에서 한국 출전선수가 가장 많았던 대회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당시 48명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딴 게 유일한 성적이지만 올시즌 월드컵시리즈에서 31살의 노장 이규혁(서울시청)이 세차례나 우승해 올림픽에 대한 희망을 부풀리고 있다.

‘괴짜퀸’ 김연아에 대해선 “2위하고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게 국제빙상계의 평가”라며 “김연아가 침착하게 자기 기량의 85%만 발휘해도 금메달”이라고 설명한 박회장은 그러나 “쇼트트랙은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선불리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7위에 올랐던 토리노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딴 게 유일한 성적이다.

‘괴짜퀸’ 김연아에 대해선 “2위하고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게 국제빙상계의 평가”라며 “김연아가 침착하게 자기 기량의 85%만 발휘해도 금메달”이라고 설명한 박회장은 그러나 “쇼트트랙은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선불리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7위에 올랐던 토리노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딴 게 유일한 성적이다.

‘괴짜퀸’ 김연아에 대해선 “2위하고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게 국제빙상계의 평가”라며 “김연아가 침착하게 자기 기량의 85%만 발휘해도 금메달”이라고 설명한 박회장은 그러나 “쇼트트랙은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선불리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7위에 올랐던 토리노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딴 게 유일한 성적이다.

‘괴짜퀸’ 김연아에 대해선 “2위하고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게 국제빙상계의 평가”라며 “김연아가 침착하게 자기 기량의 85%만 발휘해도 금메달”이라고 설명한 박회장은 그러나 “쇼트트랙은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선불리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7위에 올랐던 토리노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딴 게 유일한 성적이다.

‘괴짜퀸’ 김연아에 대해선 “2위하고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게 국제빙상계의 평가”라며 “김연아가 침착하게 자기 기량의 85%만 발휘해도 금메달”이라고 설명한 박회장은 그러나 “쇼트트랙은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선불리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7위에 올랐던 토리노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딴 게 유일한 성적이다.

‘괴짜퀸’ 김연아에 대해선 “2위하고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게 국제빙상계의 평가”라며 “김연아가 침착하게 자기 기량의 85%만 발휘해도 금메달”이라고 설명한 박회장은 그러나 “쇼트트랙은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선불리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7위에 올랐던 토리노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딴 게 유일한 성적이다.

‘괴짜퀸’ 김연아에 대해선 “2위하고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게 국제빙상계의 평가”라며 “김연아가 침착하게 자기 기량의 85%만 발휘해도 금메달”이라고 설명한 박회장은 그러나 “쇼트트랙은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선불리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7위에 올랐던 토리노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딴 게 유일한 성적이다.

‘괴짜퀸’ 김연아에 대해선 “2위하고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게 국제빙상계의 평가”라며 “김연아가 침착하게 자기 기량의 85%만 발휘해도 금메달”이라고 설명한 박회장은 그러나 “쇼트트랙은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선불리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7위에 올랐던 토리노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딴 게 유일한 성적이다.

‘괴짜퀸’ 김연아에 대해선 “2위하고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게 국제빙상계의 평가”라며 “김연아가 침착하게 자기 기량의 85%만 발휘해도 금메달”이라고 설명한 박회장은 그러나 “쇼트트랙은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선불리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7위에 올랐던 토리노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딴 게 유일한 성적이다.

‘괴짜퀸’ 김연아에 대해선 “2위하고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게 국제빙상계의 평가”라며 “김연아가 침착하게 자기 기량의 85%만 발휘해도 금메달”이라고 설명한 박회장은 그러나 “쇼트트랙은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선불리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7위에 올랐던 토리노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딴 게 유일한 성적이다.

‘괴짜퀸’ 김연아에 대해선 “2위하고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게 국제빙상계의 평가”라며 “김연아가 침착하게 자기 기량의 85%만 발휘해도 금메달”이라고 설명한 박회장은 그러나 “쇼트트랙은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선불리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7위에 올랐던 토리노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딴 게 유일한 성적이다.

‘괴짜퀸’ 김연아에 대해선 “2위하고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게 국제빙상계의 평가”라며 “김연아가 침착하게 자기 기량의 85%만 발휘해도 금메달”이라고 설명한 박회장은 그러나 “쇼트트랙은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선불리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7위에 올랐던 토리노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딴 게 유일한 성적이다.

‘괴짜퀸’ 김연아에 대해선 “2위하고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게 국제빙상계의 평가”라며 “김연아가 침착하게 자기 기량의 85%만 발휘해도 금메달”이라고 설명한 박회장은 그러나 “쇼트트랙은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선불리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7위에 올랐던 토리노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딴 게 유일한 성적이다.

‘괴짜퀸’ 김연아에 대해선 “2위하고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게 국제빙상계의 평가”라며 “김연아가 침착하게 자기 기량의 85%만 발휘해도 금메달”이라고 설명한 박회장은 그러나 “쇼트트랙은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선불리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7위에 올랐던 토리노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딴 게 유일한 성적이다.

‘괴짜퀸’ 김연아에 대해선 “2위하고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게 국제빙상계의 평가”라며 “김연아가 침착하게 자기 기량의 85%만 발휘해도 금메달”이라고 설명한 박회장은 그러나 “쇼트트랙은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선불리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7위에 올랐던 토리노올림픽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 김윤만(현 대한체육

연맹)이 은메달, 2006년